



1. 마니아들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암산 패러글라이딩활공장. 노람뜰 하늘을 날고 있다.
2. 노람뜰 전경.
3. 평창올림픽시장은 강원도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메밀 부치기의 원조시장이다.
4. 123점에 이르는 진기한 수석들을 전시중인 바위공원. <사진=평창군 제공>



### 노람뜰 테마파크

평창군은 현재 693억원을 들여 노람뜰 일대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험 및 체류형 관광시설을 집중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람뜰에는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평창 힐링체험파크, 평창에코랜드, 평창강물환경 체험센터, 목재문화체험장, 평창수학아카데미 등이 조성됐거나 속속 건립이 추진 중이다. 또한 노람뜰 인근에는 명품 평창강생태하천과 평창 평화길이 들어선 테 이어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99억원), 평창치유의 숲 조성사업(60억원) 등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인근에는 60여년 전통의 평창올림픽시장도 성업중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 심포가 필요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

평창

◇4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집중 유치=평창군이 역점적으로 조성한 녹색치유&레포츠단지는 지난 5월 12일 평창 돌문화체험관 개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평창군은 2013년부터 녹색휴양공원, 바위공원 및 장암산 등산로 정비, 평창 돌문화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평창 돌문화체험관은 총 79억원을 들여 연면적 1730㎡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 2층에는 체험실, 수석테마 카페, 수장고,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창 돌문화체험관 옆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바위공원이 있다. 2006년 조성된 바위공원은 1만 7785㎡ 부지에 100톤이 넘는 대형바위를 비롯해 금수강산, 신선암, 거북바위, 형제바위 등 자연과 동물의 형상을 한 123점에 이르는 진기한 수석들이 전시돼 수석 호수인 및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에는 32개의 테크를 갖춘 무료 오토캠핑장이

있다. 피서철에는 텐트를 이용한 캠핑장으로 인기가 높아 전국에서 찾아온 캠핑족들로 연일 붐빈다. ◇한강수계 최상류 발원지서 힐링체험=평창 힐링체험파크는 37억4000만원을 들여 올 1월 준공됐다. 새소리원(미로숲) 4200㎡, 생태습지원 3900㎡, 물소리원 2260㎡, 빛의 화원 4900㎡ 등이 들어섰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는 약 4만㎡ 부지에 97억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물환경학습장, 수생태연못, 습지 체험마당, 수변 관찰로, 야생초화원, 버스킹 광장 등이 조성된다. 평창 에코랜드는 70억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조성된다. 에코랜드에는 인공생태하천 및 석부자 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2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주요 시설물로 전시관과 교육 시설, 목재 놀이터, 숲 속의 집, 소규모 야외 체험시설 등이 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는 총 97억원을 들여 한강 수계 최상류 발원지인 평창강변에 새로운 가족형 녹색 힐링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약 4만㎡의 부지에 2022년 12월까지 물환경학습장, 수생태연못, 여울 2곳, 습지 체험마당, 수변 관찰로 1.5km, 야생초화원, 버스킹 광장 등이 건립된다. 전국 최초 수학 특화체험시설인 평창 수학아카데미는 총 100억원을 들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말까지 들어선다. 6000㎡ 부지에 수학전시장, 수학체험관, 수학실�헌실, 연구소, 청소년 야외체험장 등이 조성된다. ◇활공장·백일홍 꽃밭·평창강생태하천 볼거리 풍성=바위공원의 앞에 위치한 장암산은 평창강과 어우러지며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해발 700m 정상에서 정명한 하늘과 굽어치는 평창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활공장은 마니아들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 평창 평화길은 지난 5월 1일 노람뜰 인근 평

지난달 개관 돌문화체험관 눈길 전국 최대 규모 바위공원도 인접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마니아들 성지로 인기 60년 전통시장 평창올림픽시장엔 메밀전병·올챙이국수 등 별미 가득

창읍 구 상리다리에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총 25억원을 들여 노람뜰 순환 목재 데크로 1.7km, 전망대 2개소, 간이쉼터 7개소, 입구쉼터 1개소 등이 들어섰다.

평창군은 노람뜰을 끼고 돌며 흐르는 평창강의 생태하천 조성공사도 총 161억5800만원을 들여 2019년 12월 완공했다. 이 공사는 평창읍 여만리-종부리 구간 9.3km 내 중리지구, 천변리지구, 종부지구 등 3곳의 친수공간과 인도교 2개소, 및 가동보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리지구에는 잔디광장, 산책로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휴식·여가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천변리 지구는 잔디블록 광장, 데크길, 휴게공간을 만들어 인근에 위치한 평창 오일장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종부지구 백일홍축제장 주변은 친수공간과 휴게쉼터로 조성됐다. ◇메밀부치기 원조 평창올림픽시장=노람뜰 인근 평창읍 하리에 위치한 평창올림픽시장은 과거 평창 전통시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 된 후 이름을 바꿔 재탄생했다. 1955년부터 6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인근 정선, 영월 등지와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들어섰다. 평창올림픽시장은 강원도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메밀 부치기 원조 시장이다. 골목형 밀집시장으로 60여 점포가 옹기종기 모여 영업을 하고 있다. 메밀 부치기를 비롯해 메밀전병, 메밀국수 등 메밀을 이용한 음식이 유명하다. 이외에 올챙이국수와 킷치기국수, 수수부꾸미, 옥수수 막걸리 등 별미가 가득하다. 올림픽시장은 상설로도 운영되지만, 장날은 5, 10일마다 열린다. /강원일보=김광희기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